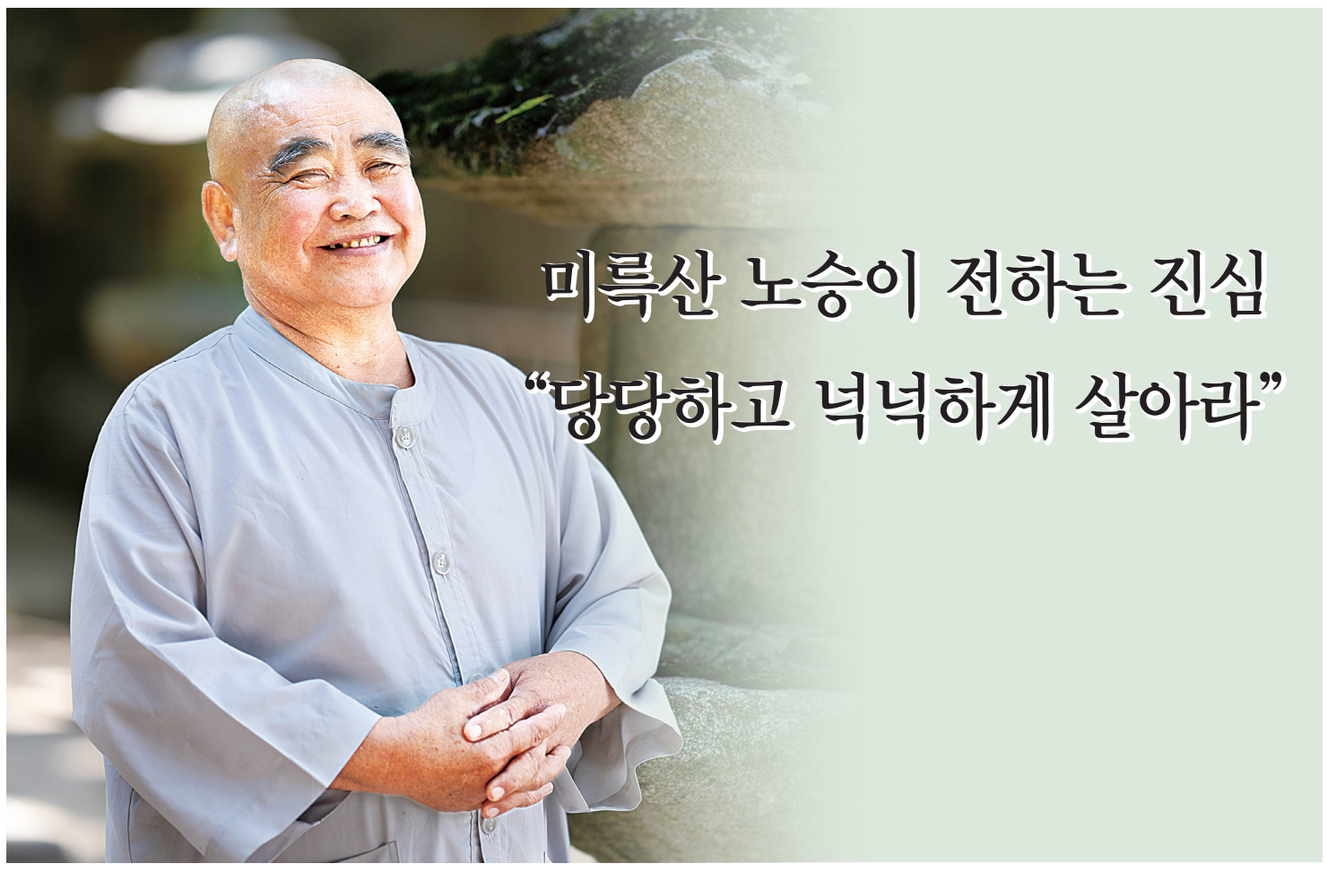


미륵산 노승이 전하는 진심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
향봉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 7000원

미륵산 사자암 주석 향봉 스님
유려한 문체로 인생 지혜 전해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라" 당부

20년째 익산 미륵산 사자암에 상좌도 없이 주석하며 수행 중인 향봉 스님. 스님은 1980년대 법정 스님 등과 함께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저서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60여 만 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향봉 스님의 글에는 스님만의 특별한 글맛이 있다. 어느 문장은 한없이 말랑한 위로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문장은 금방이라도 칼끝에 베일 것처럼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렇기에 스님의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한동안 책을 발간하지 않던 향봉 스님이 올해 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으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다 못한 이야기가 남아설까. 향봉 스님은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로 다시 대중을 찾았다.

전작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이 향봉 스님의 구도기이자 깨달음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후속작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는 60여 년 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수없이 던졌던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유하며 터득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책에는 스님의 아주 오래된 질문인 행복과 자유,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을 엮어가는 지혜와 깨우침의 죽비소리가 절절하다. 한 줄 한 줄 가슴에 새기며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어떤 설법보다 강렬하게 가슴에 와닿는 스님의 푸른 목소리가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1장은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가치와 기준, 2장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삶과 죽음의 성찰, 3장은 인생을 대하는 삶의 지혜로운 태도, 4장은 온전한 깨달음으로 완성하는 수행, 5장은 참된 스승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할 수행승들에게 던지는 애정 어린 쓴소리를 진솔하게 담아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러나 행복은 정해진 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향봉 스님은 말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마음을 열고 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고. 아침 일찍 절 마당에 찾아온 산새의 지저귐에도 행복을 느끼고, 소박한 반찬에 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워도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 별 것 아닌 소소한 일상이 곧 행복이다.

모든 병은 집착과 욕심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행복' 해야 한다는 것조차 스스로 최면을 걸어 놓고 강박적인 '집착' 에 매달려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다는 건 닫힌 세상을 향해 먼저 마음의 빗장을 푸는 일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찰나일 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미련 둘 게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 두려울 게 없다. 스님은 지나간 어제에 흔들리는 자는 '좀팽이' , 다가올 내일의 일을 미리 앞당겨 헐떡이는 자는 '머저리' 라고 칭한다.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변두리와 모서리를 서성이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경계한다.

"지나간 어제의 일에 흔들리는 자는 좀팽이이고 다가올 내일의 일을 미리 앞당겨 헐떡이는 자는 머저리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은 오로지 오늘뿐이다. 영원한 오늘의 주인공으로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만의 행복, 나만의 자유를 위해 닫힌 문 열고 새 출발의 설렘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 일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여는 글' 중에서

어찌 인생이 달달하기만 할까, 어찌 인생이 쉽기만 할까. 누구나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위기의 순간들을 넘겨야 할 때가 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릴 때 이 책을 펼쳐본다면, 막막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향봉 스님**은?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올해 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펴내며 40여 년 만에 다시 베스트셀러 작가로 돌아왔다.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셀프 코칭



오십에 하는 나 공부
남혜경 지음
샨티 펴냄
1만 7000원

〈오십에 하는 나 공부〉는 '퇴직과 새로운 일' , '남편, 아내,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 , '나이 듦' , '상실과 죽음' 등등 삶의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50~60대들이 '코칭' 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코칭이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이고, 이 책의 저자처럼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져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코치이다.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의 코칭 사례들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코치가 곁에 없더라도 독자 스스로 자기 상황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셀프 코칭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런 코칭 철학은 저자가 꾸준히 공부해 온 불교의 가르침 방식과도 참 많이 닮아 있었다. 부처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질문을 갖고 수행하며 스스로 답을 찾았고, 가르침을 펼 때도 상대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했다. 그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궁극의 답을 찾고 진리의 빛을 발견할 때까지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들이 꼭 부처의 그것과 같거나 닮은 것일 필요는 없다. 다만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나에게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 찾을 수 있으면 된다. 물론 그 질문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면 부처를 포함해 다른 어떤 선각자에게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책 끝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별로 없는 독자들을 위해 부록으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108가지 질문' 을 실어,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 '더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상실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불안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질문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다.

▲저자 **남혜경**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문학과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대중 매체 기자와 편집자로 십수년을 살다 오십 고개를 지나며 라이프코치가 되었다. 동년배 시니어들과 소통하며, '늙음'이 하릴없이 물러나 앉는 일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베푸는 성숙의 과정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코치가 되고 싶어 한다. 두려움 없이 늙어갈 수 있기를 꿈꾸며 '안심하고 나이 들기'라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며 토론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삶과 사랑과 죽음에 관한 대화



웰다잉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람 다스&미라바이 부시 지음
유영일 옮김/올리브나무 펴냄
1만 8000원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인류 공통의 정서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철학' 이 유효할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모와 친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미국 정신계의 전설인 람 다스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자신이 온 생애를 통해 터득한 '지혜의 보물창고' 를 열어 보였다. 이 책은 동양의 명상법을 서구에 전파한 람 다스와 마음챙김으로 구글에 새 바람을 일으킨 미라바이 부시의 삶과 사랑과 죽음에 관한 대화다.

람 다스는 최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30대 초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었으나 환각제 효과를 통한 인간의 의식 확장 실험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교수직에서 파문당하고 인도로 간다. 동양의 영성과 명상 전통에 충격을 받은 그는 '마하라지' 로 더 잘 알려진 '님 카롤리 바바' 를 만나 몸, 마음을 넘어선 거대한 사랑의 물결을 체험하고 대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나' 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나' (에고)가 아니라 '사랑의 의식' 곧 영혼이라는 것을 온 존재로 깨달은 것이다. 마하라지로부터 '신의 종' 이라는 뜻을 지닌 람 다스라는 이름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동양의 영성과 요가를 대중화하는 초석이 된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인생을 바꾸어 준 멘토' 로 여겼을 만큼 미국 사회에 그가 끼친 영향은 깊고도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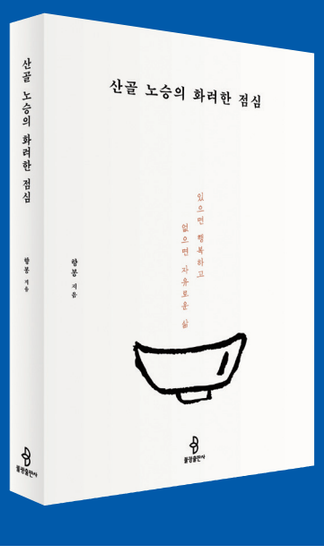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실어증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는 하와이 마우이에 자리를 잡고 다른 영적 리더들과 함께 계속해서 수련회를 열었으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도반인 미라바이 부시를 초청, 두 사람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마지막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웰다잉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세상에 남겼다.

이 책은 선물이자 기쁨이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촉발되곤 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리셋 버튼이 되어줄 것이다.

임은호 기자

눈이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산골 노승 향봉 스님의 시리도록 절절한 글맛!

2023년 종교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증명한
첫 번째 산문집



눈물과 폭소를 오가며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해 하루 만에 완독한 책!
- ★★★★★ 〈알라딘〉 독자 리뷰

3번 이상 정독할 가치가 있음!
- ★★★★★ 〈예스24〉 독자 리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됩니다.
- ★★★★★ 〈교보문고〉 독자 리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출간 즉시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엮은
두 번째 산문집



젊은 날의 어느 날,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를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맞으며
엉엉 소리내며 흐느낀 추억이 있다.
무엇으로도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젊음이
승복 안에 갇혀 답답하고 가련하여 울었던 것 같다.
이제는 머리 허연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
봉지커피를 마시면서도 곱게 자란 행복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산골 노승의 푸른 목소리
자유롭고 당당하게 오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불교 공부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드디어 찾았다!
불교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재미있는 불교 입문서!

단숨에 읽어지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불교 수업



주요 온라인 서점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지음
352쪽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